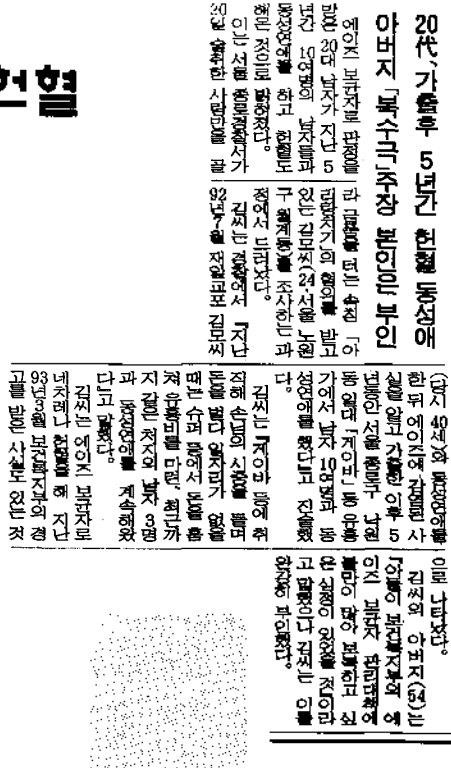


# 에이즈보균자 관리 '가명' 20대 가명화 5년간 전례 미보인

## 에이즈 감염자의 보복헌법 사건에 대해서

오병훈 /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최근 모 일간지에 '에이즈 20대, 5년간 남녀 수십명과 보복성접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활자화되어 다시 한번 AIDS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남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지난 5년간 남녀 수십명과 성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남자는 지난 93년 에이즈 감염에 대한 보복성 헌혈 행각을 벌여 충격을 주었던 장본인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술취한 사람만을 골라 금품을 털 험의로 김모(24·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92년 AIDS에 감염된 뒤 동성연애자와 유흥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재일교포 40대 남자와 동성연애를 한 뒤 92년 3월 헌혈을 하다 감염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서울 낙원동 게이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동성연애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여성들과의 성접촉은 부인했으나 지난 3월 20일 낙원동 모여관에서 10대 여자와 함께 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성접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93년초 AIDS보균자임을 숨긴 채 가명으로 다섯 차례 헌혈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93년 두 차례 헌혈했을 뿐, 그 이후로는 헌혈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93년 ‘보복성 헌혈’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가명으로 헌혈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헌혈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보건복지부에 특이질환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으며 매월 관할 노원구 보건소에서 보건 상담을 받고 6개월에 1번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기능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노원구 보건소의 96년 면담일지에는 「동성연애자들과 접촉 일체 없음」이라고 기록, AIDS 보균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당사자인 김씨는 또 “성접촉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콘돔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성관계를 갖기 전에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미나 중 참가자들이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내가 만일 HIV에 감염되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즉 가상의 HIV감염경로와 검사결과 감염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 상상해 보면서 진정으로 HIV감염자의 심정 및 그 외로움과 아픔을 마음

---

**이번의 구속된 김모씨 (24·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버지 (54)는 “아들이 보균자 관리 대책에 불만이 많아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으나 김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

또한 김씨는 “정액을 통해 에이즈균을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과 관계전에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처음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는 ‘왜 하필 내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렸나’하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보복차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가 만일 HIV에 감염된다면...**

어느 에이즈환자의 고백처럼 ‘친구도 없이 떠돌다 공원벤치 위에서 자고 가끔 눈이 맞는 애인 만나 따라가는 생활은 이제는 지쳤다며 차라리 나를 수용소에 밀어 달라’는 항변앞에서 우리는 에이즈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해야 함을 느끼게 된다.

즉, AIDS는 인간의 질병이며 감염자를 단순한 선입견으로 죄악시하기 보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이끌어 들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주최한 AIDS예방을

으로 재현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였다.

사실상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감정은 사랑과 미움이며, 미움이란 결국은 자살과 타살로 이어지며, 보복이란 타살의 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묘약이란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이며, 사랑이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며 포용해 주려는 마음의 전달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수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수도 있으나 중앙적십자 혈액원에서는 모든 혈액에 대해 정확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양성판정을 받으면 혈액은 소각 폐기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느껴야 할 것은 감염자의 감정을 이해하며 아울러 피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보복의 심정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AIDS예방에 누구나가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A)**